***언약궤와 장막의 역사***

**5/30 월**

**출 40:20-21**

**20** 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, 그 궤에 채를 끼우고, 궤 위에 속죄 덮개를 두었다.

**21** 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는데,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.

**골 2:9**

**9** 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.

**딤전 3:15**

**15** 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,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,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.

**엡 2:21-22**

**21** 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,

**22** 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

**요 1:14**

**14** 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,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.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.

**요 14:2, 23**

**2** 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.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.

**23** 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.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.

**계 21:3**

**3** 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“보아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,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.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,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.

**5/31 화**

**출 25:10-11**

**10** “그들이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되, 길이가 이 규빗 반, 너비가 일 규빗 반, 높이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**11** 그것에 순금을 입히되 안과 밖으로 입히고, 그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.

**롬 3:25-26**

**25** 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,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,

**26** 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.

**빌 3:9**

**9** 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.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,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,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.

**히 4:16**

**16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

**벧후 1:4**

**4** 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,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,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
**히 2:17**

**17** 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,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.

**히 9:4**

**4** 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,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.

**요일 2:2**

**2** 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,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.

**요일 4:19**

**19** 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.

**6/1 수**

**민 10:35-36**

**35** 궤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. “오, 여호와님! 일어나십시오.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.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.”

**36** 궤가 쉴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. “오, 여호와님!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십시오.”

**삼상 4:3-4, 22**

**3** 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. “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족속 앞에서 치셨겠습니까?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두어서,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합시다.”

**4** 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, 그룹들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였다.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.

**22** 그 여인이 말하였다. “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.”

**수 3:3**

**3** 백성에게 명령하였다. “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거든, 여러분은 묵었던 곳을 떠나 진군하여 그 뒤를 따르십시오.

**출 40:38**

**38** 이처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온 집이 보는 앞에,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,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.

**딤전 3:15**

**15** 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,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,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.

**6/2 목**

**삼상 4:11**

**11** 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.

**계 3:19-20**

**19** 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.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.

**20** 보아라, 내가 문밖에 서서, 문을 두드린다.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,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,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.

**삼상 4:21-22**

**21** 그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“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.”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였다.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,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기 때문이다.

**22** 그 여인이 말하였다. “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.”

**삼상 2:30b, 35**

**30** 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한다. 내가 너의 집안과 너의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, 이제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.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.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,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.

**35** 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,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.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,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.

**왕상 8:48**

**48** 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,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,

**렘 32:39**

**39** 나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,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.

**6/3 금**

**삼하 6:12**

**12** 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보고가 다윗왕에게 들어가자 다윗이 기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.

**왕상 8:6, 11, 18-19**

**6** 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리, 곧 집의 맨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의 그룹들 날개 아래에 들였다.

**11** 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.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.

**18** 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‘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,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다.

**19** 하지만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, 네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.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.’

**엡 2:13-15, 20**

**13** 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.

**14** 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,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,

**15** 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,

**20** 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.

**6/4 토**

**출 40:21, 34**

**21** 그런 다음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는데,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.

**34** 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,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.

**엡 3:16-17, 18-21**

**16** 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,

**17** 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,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

**18** 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

**19** 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,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

**20** 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,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

**21** 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

**계 21:1-4, 10-11**

**1** 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.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,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.

**2** 또 내가 보니,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,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

**3** 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“보아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,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.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,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.

**4** 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,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,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.”

**10** 내가 영 안에 있는데,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,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.

**11** 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,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

**6/5 주일**

**시 132:1-8, 13-16**

**1** 오, 여호와님! 기억하여 주십시오,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고통을,

**2** 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능력 있으신 분께 서원하였는지를.

**3** “저는 제 집 천막에 들지 아니하고 제 침상 자리에 오르지도 아니하며

**4** 제 눈에 잠을, 제 눈꺼풀에 졸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.

**5** 여호와를 위한 한 곳, 야곱의 능력 있으신 분을 위한 장막을 찾기까지.”

**6** 보아라,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구나.

**7** 우리가 그분의 장막에 들어가 그분의 발 받침대 앞에서 경배하리라.

**8** 오, 여호와님! 일어나시어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드십시오.

**13** 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.

**14** “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.

**15** 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.

**16** 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.

***The Church in New York City***

www.churchinnyc.org